

## 인 사 말

종정예하의 지혜와 정진의 덕화를 존경하며, 원로의장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의 고견과 격려를 항상 공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원로스님들께서 이루신 공덕에 누가되지 않도록 종단 운영에 면밀함을 다하겠습니다.

종단 집행부는 종단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의 한해를 만들겠다는 다짐속에서 국민과 불자 모두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가짐, 넓은 이해심과 화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하면서 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종정예하의 증명아래 전 세계 불교 지도자들과 함께 ‘세계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회’를 봉행합니다. 한국불교의 정수인 간화선의 선근을 선양하기 위한 무차선대법회와 무형문화재인 연등회가 조화롭게 배치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산인 전통문화와 한국불교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평화로운 공존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기원대회에 평소의 원력을 더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종단은 종단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대중공사를 통해, 종단과 불교를 위해서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원로스님들의 근념과 염려를 등불삼아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으로는 우리 종단은 선대의 숭고한 정신을 잇겠다는 다짐으로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선학원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학원의 정체성이 올곧게 다시 서고 선조의 설립정신과 종도들의 염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 또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 20일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건립을 위해 선서화전을 개최합니다. 종정예하를 비롯한 여기계신 원로 대종사께서 성심으로 동참해 주셨고, 저 또한 소장한 선서화 모두를 기증하였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프리카에 한국불교의 지혜와 자비가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며, 어려운 일 또한 없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보다 애종의 마음과 경륜을 지니신 원로스님의 지혜로움이 매우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종단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언제나처럼 청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